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 연구*

현 아 름

안 하 안†

평택송현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예비전문상담교사와 현직전문상담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을 토대로,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참여했던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형식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설문에 참여한 현직전문상담교사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사전조사 시 질문했던 내용을 보다 상세화하여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조사 및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통합한 결과,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및 운영 개선방안으로 3개 영역, 9개 범주, 23개 핵심개념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실습 내용 구성요소’ 영역에는 상담 실습활동, 상담 교육활동, 위(Wee)클래스 운영 및 행정활동의 범주가 포함되며, ‘교육실습 내용 조직방법’ 영역에는 윤리적 측면, 구조적 측면, 환경적 측면의 범주가 포함되고, ‘교육실습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 영역에는 실습학교의 역할, 교원양성기관의 역할, 교육(지원)청의 역할 범주가 포함되었다. 교육실습의 내용적 측면에서 구성요소 및 조직방법 뿐만 아니라 운영적 측면에서 관계기관에 기대되는 역할을 토대로, 예비전문상담교사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전문상담 교육실습, 예비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 본 연구는 현아름(2022)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지각한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용 및 개선방안’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안하안,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54

Tel: 02-6964-7059, E-mail: hayan@sgcp.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학교상담이란 학교라는 공간에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가 학생을 비롯한 교사, 학부모 등의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이고 반응적인 성격의 전문적 활동을 의미한다(김민정, 2022).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저연령화, 범죄화되고 있는 양상과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일 등이 조명되면서, 이를 예방하거나 조기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전문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태희, 2023). 교권침해의 심각성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담임 교사들은 부적응 학생 지도 및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여러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호소하고 있다(최준섭, 2020; 한병규, 2023).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역량뿐만 아니라, 교사 자문이나 학부모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도 전문상담교사에게 강조되고 있다. 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기 전, 학교상담 개입 및 지원 방법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피해학생 심리상담과 더불어 가해학생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의무화됨으로써(학교보건법, 2013; 학교폭력예방법, 2023)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교사의 전문 역량 함양 역시 중요해졌다.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중 예비전문상담교사가 실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예비교사로 학교상담 현장을 경험해 보는 ‘교육실습’이다(정하운, 조항, 2022).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에 대

한 실제적 이해를 높여 교사가 되었을 때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교사로서의 전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천성문, 2014). 또한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로 하여금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며, 더 나아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성장을 돕는 핵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유형근, 2007).

상담교사의 전문 역량 함양에 대한 중요성을 앞서 인식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학교상담교사(school counselor)를 양성하기 위해 그간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는 실제적인 상담 실무 역량을 중요하게 여겨,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하에 상담실습을 경험해야 한다는 정해진 규정이나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상담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김민정(2022)의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주(State)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체로 상담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준위원회(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CACREP)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르는데, 석사 과정에서 100시간 이상의 상담실습과 600시간 이상의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 과정 중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영국 또한 학교상담교사가 되기 위한 단일한 양성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상담 관련 협회나 학회의 자격 기준을 따른다. 이들 기관에서는 영국상담심리치료협회(British Association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BACP)에서 설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슈퍼바이저의 지도하에 100시간 이상의 상담실습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싱가포르

포르는 학교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교육부가 주관하며, 기존에 상담훈련을 받은 지원자는 싱가포르 상담협회(Singapore Association for Counselling: SAC)의 교육을 수료한 뒤 600시간의 실습과 60시간의 슈퍼비전을 이수하였을 때 학교상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상담훈련을 받지 않은 지원자의 경우,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8개월간의 기초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뒤, 2년간의 추수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렇듯 국외 여러 국가에서는 예비교사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로 파견하기 전, 상담실습과 이에 대한 슈퍼비전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또한 전문상담 교육실습 제도를 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여전히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비체계적인 운영이 상담교사 양성의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하규영 외, 2022).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관한 학위논문 6편과 학술지 8편(2023년 4월 기준, 학술지 8편 중 3편은 학위논문을 토대로 함)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중 교육실습경험이 예비전문상담교사의 교직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위논문 1편(예, 현은희, 2019)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비체계적인 교육실습으로 인해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교육실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예, 강승희, 2020; 김신애, 2022; 문은희, 2019; 박혜영, 정현희, 2023; 반승관 외, 2021; 유은선, 조항, 2020; 유형근, 2006; 유형근, 2007; 정하운, 조항, 2022; 하규영 외, 2022).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대한 매뉴얼(커리

클)의 부재이다. 이는 교육실습 제공자와 수요자인 전문상담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모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공식적인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실습 내용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평가기준이 부재하여 오롯이 혼자 평가를 진행할 때 많은 한계와 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반승관 외, 2021; 유형근, 2006; 하규영 외, 2022). 교육실습생들은 교육실습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실습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다른 학교 전문상담 교육실습생들과 상이한 실습을 받고 있음에 당황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신애, 2022; 박혜영, 정현희, 2023; 유은선, 조항, 2020). 매뉴얼의 부재는 교육실습생을 지도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실무 및 실습 지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점과 맥락을 같이하였다. 실습 매뉴얼의 부재로 지도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교별 실습 내용 및 진행과정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자격 요건 또한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연결되었다(김신애, 2022; 문은희, 2019; 박혜영, 정현희, 2023; 반승관 외, 2021; 유은선, 조항, 2020; 유형근, 2006; 유형근, 2007; 정하운, 조항, 2022).

다음으로, 교육실습이 기존의 교과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은 다양한 상담실습 기회와 실습 시간의 부족이라는 연쇄적인 문제점들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실습생들은 교육실습 책자의 내용이 일반교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으며, 수행해야 할 과제가 일반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강 참여 감상문이나 수업전략을 짜는 것이었고(박혜영, 정현희, 2023), 실습일지의 양식

이 교과실습생들의 활동 기록에 맞춰져 있어 상담과 관련된 활동을 기록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하규영 외, 2022). 교육실습 현장이 교과교육실습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였다(김신애, 2022; 문은희, 2019; 박혜영, 정현희, 2023). 더불어 교육실습생들은 실습 과정 중 상담실습 기회가 부족함을 보고하였다. 지도교사 별로 허용하는 상담활동의 범위가 달라 상담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기도 하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도 수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야 했기에 상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강승희, 2020; 김신애, 2022; 문은희, 2019; 박혜영, 정현희, 2023; 유은선, 조항, 2020; 정하윤, 조항, 2022; 하규영 외, 2022).

그간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관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 연구자들은 예비전문상담교사와 현직전문상담교사 각각의 입장에서 교육실습의 과정과 경험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하여,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현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예비전문상담교사들에게 교육실습 경험은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자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핵심경험인 점(이유빈 외, 2023)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거듭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말해,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실태를 확인하는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교육실습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가 소수 있지만(예, 정하윤, 조항,

2022; 하규영 외, 2022), 이들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이 이를 지도하고 지도받는 지도교사-실습생, 두 주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간과되거나 실습학교-교원양성기관-교육(지원)청 세 기관의 구체적 역할이 탐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 교육실습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양측에게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 경험 및 의견을 모았고, 전문상담 교육실습 참여경험과 학교상담 현장경험이 모두 있는 현직전문상담교사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상세히 듣기 위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교육실습의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효과적인 운영의 기틀을 갖추는 데 필요한 각 기관의 세부 역할도 함께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지각한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용 및 운영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대한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경험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형식의 사전조사를 진행한 뒤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연구자의 지인인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에게 연

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한 뒤 참여를 요청함과 동시에 이들의 지인 중 본 연구에 참여가 가능한 교사를 소개받았으며, 소개받은 교사들로부터 또 다른 교사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연구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모집된 전문상담 예비교사들과 현직교사들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연구 절차, 개인정보 및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참여자의 권리 등을 담은 연구안내문을 제공하였으며,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았다. 사전조사를 위해 온라인으로 설문을 배포하였고, 예비전문상담교사와 현직전문상담교사용으로 구분된 설문지를 해당 참여자에게 전달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에 참여했던 현직전문상담교사들 중 심층면담 참여의사를 밝힌 6인에게 다시 한번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이때, 이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심층면담 참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면담질문이 포함된 설명문을 미리 이메일로 발송하고, 면담을 시작하기 전 익명성이 보장됨을 거듭 안내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참여 및 녹음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가 서명한 동의서를 각각 한 부씩

나누어 가졌다. 심층면담은 참여자별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 외에 세부적인 사안이나 구체적인 경험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노트 필기하여, 응답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 후 추가 질문이나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 연락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심층면담에 대한 충실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연구 참여자

사전조사: 참여자

사전조사는 ‘예비전문상담교사’와 ‘현직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 4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예비교사의 경우, 전문상담 교육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27명 모두 조사 시점(2022년)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습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중 여자는 25명, 남자는 2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25명, 30대가 2명이었다. 현직교사의 경우, 전문상담 교육실습을 받은 경험과 위(Wee)클래스에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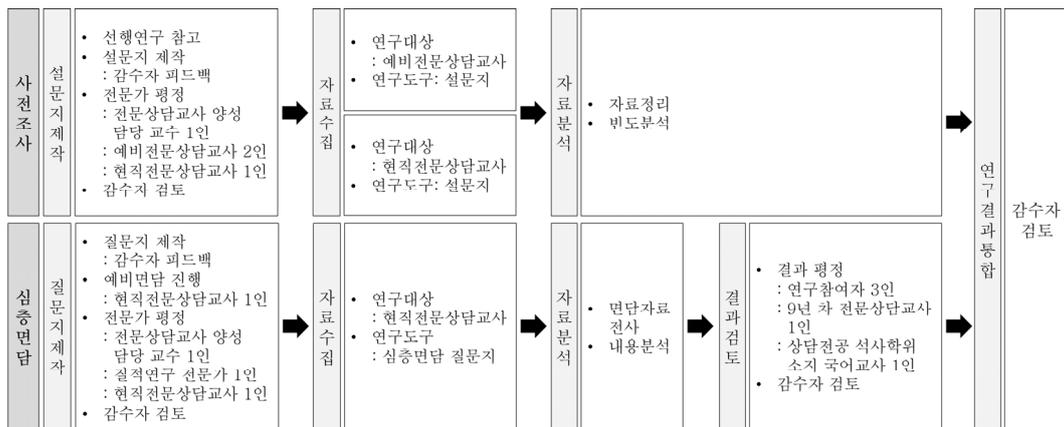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수행절차

무한 경험이 모두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현직교사 30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이 중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재직경력이 조사 시점(2022년)으로부터 5년 이내인 자가 22명, 5년 이상인 자가 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직경력 5년 이내인 22명의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이 중 여자는 20명, 남자는 2명, 연령은 20대가 16명, 30대 이상이 6명이었다.

심층면담: 참여자

심층면담은 앞선 사전조사에 참여했던 현직 전문상담교사 중 재직경력이 5년 이내이고, 자발적으로 심층면담 참여의사를 밝힌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조사와 심층면담에서 현직교사의 재직경력이 5년 이내인 자의 자료만을 선별하거나 심층면담 참여 기준을 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혜숙과 이기학(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상담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형성기’는 경력 3년 이하를 의미하는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새로운 상황적 변수로 작용했

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형성기에 있는 교사들은 학교 상담현장에서 다양한 난관에 봉착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교육실습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멀지 않은 이들이 교육실습을 활용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실제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 예상하였다. 참여자에 대한 상세 정보는 표 1과 같다.

연구 도구

사전조사: 설문지

예비전문상담교사에게는 교육실습 관련 기본 정보와 함께 교육실습 기간 동안 수행했던 주요활동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문상담 교육실습 업무영역 및 영역별 주요활동’ 목록을 구성하였다(표 2). 이는 상담 활동을 비롯한 학교경영, 학급경영, 생활지도의 4가지 영역에 대한 21가지 세부 실습활동을 제시한 천성문(2014)의 ‘학교상담 교육실습생의 참가 활동 내용’ 표와 유형근(2006)의 ‘전

표 1.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현재 전문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과거 예비전문상담교사로 참여했던		
			학교급	학교 소재지	교사 재직경력	교육실습 지도경험	교육실습 학교급	교육실습 지도교사	교육실습 기간
A	여	26	초등학교	서울	2년	X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2019.09 (4주)
B	여	30	중학교	인천	5년	O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2015.04 (4주)
C	여	29	중학교	인천	3년	O	중학교	진로상담교사	2018.04 (4주)
D	여	27	고등학교	경기도	3년	△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2017.10 (4주)
E	여	26	초등학교	서울	2년	X	중학교	진로상담부장	2018.04 (4주)
F	여	25	고등학교	서울	1년	△	중학교	전문상담교사	2018.04 (4주)

주. △는 2022년도에 교육실습 지도 예정을 뜻함.

문상담 교육실습생이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 표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4개 영역 27가지 활동으로 구성된 표이다. 구체적으로, 표 2를 제시하면서 교육실습 기간 동안 수행했던 주요활동 내용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실습 내용 중 소요 시간이 많았던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설문 마지막 부분에는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주관식 문항을 추가하였다.

현직전문상담교사에게는 교육실습 및 재직 관련 기본 정보와 더불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직무, 교육실습생이 우선 경험해야 할 직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교사 직무영역 및 영역별 직무내용' 목록

을 제시하였다(표 3). 이 목록은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김희정 외, 2014)에 수록된 '전문상담교사 직무 표준안'을 활용한 것으로, 6개 영역 21개 직무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표 3을 제시하면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모두 표시하고, 전문상담교사의 여러 직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도록 하였다. 또한 제시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중 교육실습생이 가장 우선하여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직무를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였다.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마찬가지로, 현직교사에게도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과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의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주관식 문항을

표 2. 전문상담 교육실습 업무영역 및 영역별 주요활동

전문상담 교육실습			
업무영역	주요활동내용	업무영역	주요활동내용
상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실 연간 운영 계획 작성 • 상담 오리엔테이션 • 상담 관련 서식 준비, 작성 및 정리 • 심리평가 실시 • 심리평가해석 • 상담 축어록 작성 • 매체상담 •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조정: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 • 학급단위 대집단 상담교육 • 상담관련 행사 기획 및 운영 	학교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경영과 상담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 각종 서식 파악 및 작성 • 각종 행사 준비 및 참여 • 학생 조력 활동 • 학교 순회
		학급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환경 구성 및 정리 • 출결 사항 점검 • 학급 내 안전 생활지도 • 학급 내 교우관계파악 • 각종 조사 및 통계
		생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하교 지도 • 기본 생활지도 • 교내 및 교외 지도 보조 • 특별 활동 참가 및 지도 •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형성

표 3. 전문상담교사 직무영역 및 영역별 직무내용

전문상담교사 직무			
직무영역	직무내용	직무영역	직무내용
상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심리검사 및 평가 • 단기 위기지원 • 매체상담 	연계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교사 연계 • 지역사회 전문가 연계 및 위(Wee)센터 위탁 • 위기 및 분쟁 관련 위원회 조직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자문 • 학부모 자문 • 위(Wee)클래스 자문 	기획 및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기록 및 사례관리 • 행정 업무 및 관리 • 상담실 홍보 활동 •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육 • 교사 연수 및 교육 • 학생 교육 	학교현장 실무능력 강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사례 슈퍼비전 참여 • 교사 연수 참여 •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

추가하였다.

설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담 관련 질적·양적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전문가이자 교수인 감수자로부터 내용 및 형식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이후, 예비전문상담교사 2인과 현직전문상담교사 1인,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1인에게 연구자가 구성한 두 가지 목록(표 2, 표 3)이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용과 전문상담교사 직무를 포괄하는지, 각 질문이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평정을 의뢰하였다. 평정 결과, 평정자들은 제시된 두 가지 목록이 적절하고, 질문 또한 조사 목적에 부합한다고 평가하였다. 그 밖에 명료하지 않은 표현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반복된 표현은 삭제하고 이해를 돕는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시된 목록표에 쓰인 용어 중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위기관리위원회’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

된다는 조언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다. 형식적 측면에 있어서는 한 페이지 내에서 순위를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참여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지 양식을 수정하였다.

심층면담: 질문지

심층면담 질문지는 교육실습 및 재직 관련 정보 등을 묻는 기본 질문들과 더불어 전문상담교사로서의 현재 경험과 과거 교육실습을 연계하여 답할 수 있도록 하는 심층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질문내용을 ‘현재-과거-미래’ 순서로 구성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라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전문상담교사로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상담교사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과거 교육실습의 경험, 교육실습에서 경험한 내용 중 상담교사 업무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 미래 교육실습 내용에 대한 제언, 앞으로 전문상담 교육실습생들을 위해 관계기관이 운영적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점.

심층면담 질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질문지 내용 및 형식에 관해 감수자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현직전문상담교사 1인과 예비면담을 진행하며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면담참여자가 더욱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수정하여 초안을 완성하였다. 이후,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 1인, 질적연구 전문가 1인과 9년 차 전문상담교사 1인에게 연구목적에 따른 질문내용의 적절성 및 답변 용이성, 면담 흐름의 구성적 측면 등에 관해 평정을 의뢰하였다. 평정자들은 사전 조사에서 질문했던 내용과 반복되는 부분은 면담의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상세 질문들을 통해 참여자가 더 깊이 있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조언해 주었다. 또한 참여자들의 재직경력이 5년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이 어떻게 수정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었다. 평정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보완하고 감수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자료 분석

심층면담 자료를 전사한 원자료와 심층면담시 작성한 연구노트를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이란 방대한 양의 텍스트에 담긴 내용과 잠재적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하는 질적연구방법이다(이정빈, 2018). 본 연구는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특정한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분석하고 범주화하고 기술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내용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내용분석을 위해 수집된 원자료를 읽으며 산발적으로 나타난 핵심개념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원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각 범주에 포함시킬 핵심개념들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내용과 범주들을 묶어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영역을 구성하였다.

심층면담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수자에게 내용분석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구하였다. 더불어 연구에 참여했던 전문상담교사 3인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9년 차 전문상담교사 1인에게 평정을 의뢰하였다. 먼저, 연구에 참여했던 전문상담교사들에게는 영역의 구분 및 범주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범주명이나 핵심개념의 표현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 경험이 있는 9년 차 전문상담교사에게는 내용분석 결과가 자신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추가로, 상담전공 석사학위를 소지한 현직국어교사 1인에게는 영역 및 범주명, 핵심개념의 표현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평정 받았다. 평정 결과, 모호한 범주명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보다 더 적절한 범주명을 제안받아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몇몇 핵심개념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등을 예시로 적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활동이나 세부 내용을 함께 기재하였다. 특별히, 상담 교육활동이나 담임학급 배정에 관한 내용은 아직 현

장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 관련 상세 내용을 결과 부분에 설명해 두었다.

결 과

사전조사

예비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 전문상담 교육실습 업무영역 및 영역별 주요활동으로 ‘상담활동’과 ‘학교경영’, ‘학급경영’, ‘생활지도’의 4가지 영역 내 27개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예비교사가 교육실습에서 경험한 활동의 상위 1~3순위는 각종 서식 파악 및 작성(96.3%)이 가장 많았고,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81.5%), 학급경영과 상담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66.7%), 개인상담(66.7%)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실습 활동의 4가지 영역 중 타교과 교사와 확연히 구분되면서도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상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상담활동’ 영역의 12개의 활동(상담

실 연간 운영 계획 작성, 상담 오리엔테이션, 상담 관련 서식 준비, 작성 및 정리, 심리평가 실시, 심리평가해석, 상담 축어록 작성, 매체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조정, 학급단위 대 집단 상담교육, 상담 관련 행사 기획 및 운영) 중 예비전문상담교사 과반수 이상이 경험했다고 보고한 상담활동은 ‘개인상담’이 유일하였다(전체 27명 중 18명이 경험).

현직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는, 전문상담교사 직무영역 및 영역별 직무내용으로 ‘상담활동’, ‘자문’, ‘교육’, ‘연계 및 조정’, ‘기획 및 행정’, ‘학교현장 실무능력 강화활동’의 6가지 영역 내 21개 직무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여러 직무 중 현직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로는 ‘상담활동’ 영역의 개인상담(100%)과 단기 위기지원(45.5%)이 1, 2순위를 차지했고, 현장사례 슈퍼비전 참여(22.7%)가 3순위로 꼽혔다. 또한 현직교사들이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업무 범위와 각 업무별 중요도를 고려할 때 교육실습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활동으로 꼽은 상위 1, 2순위 역시 ‘상담활동’ 영역에

표 4. 교육실습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한 활동 및 가장 우선하여 경험해야 하는 활동

구분	교육실습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한 활동		교육실습에서 가장 우선하여 경험해야 하는 활동	
	예비전문상담교사 (N=27, 복수응답)		현직전문상담교사 (N=22, 복수응답)	
활동 내용	각종 서식 파악 및 작성 (학교경영)	96.3% (1위)	개인상담 (상담활동)	81.8% (1위)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 (생활지도)	81.5% (2위)	집단상담 (상담활동)	36.7% (2위)
	학급경영과 상담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학교경영)	66.7% (3위)	상담기록 및 사례관리 (기획 및 행정)	31.2% (3위)
	개인상담 (상담활동)			

속하는 개인상담(81.8%), 집단상담(36.7%)이었고, 상담기록 및 사례관리(31.2%)가 그 뒤를 이었다. 즉, 예비전문상담교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고 보고한 활동은 학교경영과 생활지도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직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또 교육실습에서 가장 우선하여 경험해야 할 활동으로 답한 것은 상담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교육실습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묻는 문항에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상담활동 경험의 부족에 관한 내용을 주로 보고하였다. 예비전문상담교사들은 상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다(44.4%). 구체적으로, 비밀보장 등 윤리적 이유로 제대로 된 상담을 수행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실제로 이루어진 상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피드백이나 슈퍼비전을 받지 못해 상담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현직전문상담교사 또한 상담활동 및 상담업무에 대한 아쉬움을 가장 많이 보고하였는데(66.7%), 상담실습 경험 자체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접수면접의 기회조차 없어 전반적인 상담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상담

교육실습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상담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를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표 5). 뒤이어, 전문상담 교육실습을 진행할 때 실습학교 내에서 상담 분야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예비전문상담교사와 달리, 현직전문상담교사는 교육실습을 나오기 이전에 준비할 부분들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 학교상담 현장에 유용한 실제적인 교과목들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문상담 교육실습 개선방안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개선방안은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한 설문자료 분석 결과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면담자료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각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 영역, 9개 범주, 23개 핵심개념이 도출되었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교육실습 내용 구성요소

교육실습 내용 구성요소 영역에는 상담 실습활동, 상담 교육활동, 위(Wee)클래스 운영 및 행정활동이라는 3개의 하위 범주, 7개의 핵심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은 전문

표 5. 전문상담 교육실습 개선요구사항

	예비전문상담교사 (N=27, 복수응답)	현직전문상담교사 (N=22, 복수응답)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대한 제도적 보완	55.5%	상담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54.5%
개선 상담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	37%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대한 제도적 보완 40.9%
요구 교육실습 운영 시 상담 분야의 특수성 고려	14.8%	학교상담현장 이해에 초점을 둔 교원양성기관의 교과목 개설 9.9%

표 6.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용 및 운영 개선방안

영역	범주	핵심개념
교육실습 내용 구성요소	상담 실습활동	학교상담 실습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평가, 학부모상담 학교상담 지도 : 학교상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전지도, 위기사례 대처방안 지도, 학교상담 실습에 대한 사후지도
	상담 교육활동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실습 학급단위 상담 교육 실습 : 학교폭력예방교육, 생명존중교육
교육실습 내용 조직방법	위(Wee)클래스 운영 및 행정활동	위(Wee)클래스 운영 방법 지도 : 나이스/에듀파인 활용법, 상담실 연간 운영 계획서 작성 방법, 상담실 환경 조성 방법 상담기록 및 보관에 대한 실습 위(Wee)클래스 홍보 기획 및 진행 실습
	윤리적 측면	학교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습 내용 조직 : 비밀보장, 다중관계, 윤리적 딜레마 상황 등의 특수성 고려 교육실습생에 대한 공식적 보호 체계 마련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지도역량 한계 고려
	구조적 측면	학교급별 학교상담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실습 내용 조직 전문상담 업무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실습 내용 조직 전문상담 업무에 부합하는 체계적 지도방법의 구조화
교육실습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	환경적 측면	실습 학교 간 교육실습의 질적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조직 전문상담교사의 업무량을 고려한 교육실습 내용 조직
	실습학교의 역할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자격 요건 구체화 전문상담교사 업무에 대한 실습학교 구성원의 이해 증진
	교원양성기관의 역할	상담 및 심리평가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 학교상담의 실체를 반영한 교과목 신설 '교육실습' 과목에 비교과 특성 반영 실습학교 관리
	교육(지원)청의 역할	실습학교-교원양성기관-교육(지원)청 연계 교육실습 지도교사 간 교류의 장 마련

상담 교육실습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관한 것이다.

상담 실습활동. 상담 실습활동은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보고한 활동이다. 현직전문상담교사 역시

81.8%가 전문상담 교육실습에서 개인상담을 반드시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 참조). 이들은 임용된 후 첫 상담을 진행했을 때의 어려움을 떠올리며, 교육실습에서 상담을 경험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현직전문상담교사는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는 4~5월에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시기적 업무특성을 활용해 전문상담 교육실습 동안 심리평가 실시와 해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상담실습을 실제 진행해보기 위해서는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학교상담 전반에 대한 사전지도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학교상담 실무와 관련된 실제적인 수업이 개설되는 경우가 드물어,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상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채로 교육실습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예비전문상담교사들은 학교상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습장면에서 질문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음을 보고하였다. 현직전문상담교사는 이와 같은 예비전문상담교사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상담교사에게 배포된 다양한 자료 공유를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배포한 직무 관련 매뉴얼 및 자료집(예, 각종 위기사안 대처방안, 위(Wee)클래스 우수상담사례집 등)을 예비전문상담교사들에게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예비전문상담교사들이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위(Wee)클래스 및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교사 및 관리자와의 협력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 주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상담실습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사후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강조하였다.

“처음 상담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졸업하고 수련을 받아본 경험 없이 바로 교사가 됐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나, 누가 관리 감독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게 어려웠어요 (...) 그래서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을 교생 선생님이 상담해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심층면담 참여자 F>

“제가 교육실습 지도할 때 나눠주려고 업무에 관한 자료를 모아둔 USB 하나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제가 교생실습 나갔을 때 받았던 거기도 하고 후배 교육실습생들도 USB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거 같아서요 나중에 찾아서 보면 되는 거니까 학교 내에서 서류 작업이 많은데, 예시가 없으면 쓰기 어려운 게 많아서 그런 예시 자료도 정리해서 드릴 생각이예요” <심층면담 참여자 D>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학부모 상담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하였다.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상담이 어려운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 상담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실전 경험이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에 비

해 상대적으로 위기사례가 증가하는 중·고등 학생의 경우 상담을 진행할 때 위기사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직전문상담교사 중 일부는 위기상담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기관(예, 위(Wee)센터, 지역 가족센터, 연계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고, 가능하다면 예비전문상담교사와 각 기관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부모 상담도 어려움 중 하나였는데 학부모 상담을 제가 교생실습 때 해봤더라면 좀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최근에 양성되는 전문상담교사는 아무래도 육아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도 많고, 나이가 어린 20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경험해 보았다면 학부모님들한테 어렵지 않게 친해부터 다가갈 수 있었을 거 같아요” <심층면담 참여자 E>

상담 교육활동. 상담 교육활동에는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실습’과 ‘학급단위 상담 교육 실습’이라는 두 개의 핵심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또래상담 동아리를 운영하며 느낀 점들을 되돌아보며, 예비전문상담교사들이 교육실습에서 또래상담 동아리를 직접 운영해보는다면 다양한 상담사례를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아리 수업도 직접 진행해 볼 수 있을 거라 언급하였다.

“또래상담 동아리를 맡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들하고 간단하게 상담에 관한 수업도 할 수 있고 짧게나마 동아

리원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간단한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요 동아리원들도 그런 활동을 하러 온 친구들이고 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서 동아리가 실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심층면담 참여자 F>

학급단위 상담 교육 또한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로 보고되었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들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현직전문상담교사 중 일부는 수업을 진행할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교사도 있었으나, 다른 일부는 전문상담교사가 맡아야 할 수업의 범위가 아직 모호하여 담임교사(초등학교)의 개별 수업시간을 배정받거나, 배정 대상이 모호한 특별 활동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명확한 분장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비전문상담교사 중 일부는 수업과 상담을 병행하며 다중관계를 경험했던 것이 학생들과 개인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상담 교육실습생들이 왔을 때 관리자들이 수업을 하라고 하면 ‘상담교사도 교과수업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부과될 것 같아서 (...) 수업이라고 하기보다는 ‘학급 단위 상담심리교육’이나 ‘학급 내 학교폭력예방교육’ 이런 식으로 말을 좀 (구체적으로) 바꿔서 해야 할 거 같긴 해요” <심층면담 참여자 A>

위(Wee)클래스 운영 및 행정활동.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위(Wee)클래스

운영 방법(나이스/에듀과인 활용법, 상담실 연간 운영 계획서 작성 방법, 상담실 환경 조성 방법)에 관한 내용이 실습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예비전문상담 교사들은 상담실 연간 운영 계획서를 직접 작성 해 본다면 전문상담교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였다.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교육실습에서 상담실 연간 운영 계획서 작성을 지도할 수 있으며, 예비전문상담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상담실 운영 계획서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배부되는 계획서들을 교육실습에서 먼저 보고, 알았더라면 제가 처음에 (전문상담교사 업무에) 적응하는데 좀 더 쉬웠을 거 같아요” <심층면담 참여자 A>

더불어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학생 상담기록을 남기고 관리하는 일은 전문상담교사의 핵심업무이기 때문에 상담기록과 보관에 관한 실습을 진행한다던 교육실습과 현장업무의 연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위(Wee)클래스 홍보 기획 및 진행 실습에 대한 제안도 있었는데, 일부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이번에 지도하게 될 교육실습생들과 함께 위(Wee)클래스 홍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3월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상담실 홍보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랑 교사, 학부모한테 상담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담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전달하는 건데, 실습할 선생님이 오면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러구요” <심층면담 참여자 C>

교육실습 내용 조직방법

교육실습 내용의 조직방법 영역에는 ‘윤리적 측면’, ‘구조적 측면’, ‘환경적 측면’이라는 3개의 하위 범주, 8개의 핵심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은 4주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교육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 교육실습의 내용을 조직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윤리적 측면. 현직전문상담교사는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용을 조직할 때, 윤리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수업을 진행하며 만난 학생을 상담장면에서 내담자로 만나게 될 때 다중관계를 경험하게 될 수 있고, 학생과의 상담 내용을 교장(감), 담임교사와 일부 공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학교상담의 독특성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부분의 현직전문상담교사는 교육실습에서 상담 활동을 다루기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비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상담실무 경험’을 강조하며, 학교상담의 독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실습이 조직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접수면접, 단기 개인상담, 집단상담 공동진행 등의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상담실습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 개인정보보호, 비밀보장 관련 법적 사안 등)에 대해 교육실습생을 보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지도역량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학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심리평가를 실시

하고 해석하는 것, 예비전문상담교사의 상담 활동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 모두 별도의 자격과 수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지도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전문상담 교육실습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윤리적임을 언급하였다.

“제가 실습 계획을 짜면서 어떤 활동을 실습 선생님들이랑 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같이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비밀보장 부분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심층면담 참여자 C>

“제 전문성 밖을 넘어간 게, 제가 축어록을 써본 적도 없고 저도 사실 아직 슈퍼비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축어록을 작성해 오라고 하면 교생 선생님은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감히 그렇게 봐줄 수 있는가라는 거는.. (고개를 가로저음). 사실 축어록을 쓰고 그거를 봐주는 거는 상담심리사 1급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심층면담 참여자 F>

구조적 측면.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자신의 교육실습 경험을 토대로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여러 가지 구조적 제한점과 문제점을 제기하며, 표준화된 교육실습 매뉴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전문상담교사는 임용 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배치될 수 있다. 현직전문상담교사들에 따르면 학교급에 따라 상담을 받는 아이들의 특성과 상담 주제 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실습에는 이러한 차

이점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한 실질적 교육실습 내용이 조직화 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예비전문상담교사들 중 일부는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아쉬웠던 점으로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와 무관한 진로수업을 상담활동보다 더 많이 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상담 현직교사와 예비교사 모두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지도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내부적으로 볼 수 있게 1주 차에는 뭐하고 2주 차에는 뭐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아예 정해져 있으면 교육실습을 받는 선생님들도 저희도 부담이 좀 덜할 거 같아요” <심층면담 참여자 B>

“초등학교 중등은 좀 다르니까 내가 (실습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받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 초등은 거의 대부분 엄마, 아빠랑의 관계나 아니면 친구관계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좀 약간 가벼운 거. 근데 중학교로 갈수록 좀 더 답(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위기사례 관리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좀 특수한 사례들 그런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층면담 참여자 A>

환경적 측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실습학교의 환경적 측면도 제시되었다.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독립된 상담실

이 없어 교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실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도구들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학교별 상담실 환경의 차이가 교육실습 결과의 질적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전문상담 교육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 환경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 교육실습이 주로 진행되는 4월과 5월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에,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4월과 5월이 업무가 가장 많은 달임을 보고하며, 교육실습을 진행할 때 이러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시행할 때 교육실습생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면, 전문상담교사와 교육실습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교육실습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

교육실습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 영역에는 ‘실습학교의 역할’, ‘교원양성기관의 역할’, ‘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는 3개의 하위 범주, 8개의 핵심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은 전문상담 교육실습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관계기관들의 협력방안에 관한 것이다.

실습학교의 역할.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는 실습학교에서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지도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근무학교에서의 경력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전문상담교사는 5년마다 근무지를 바꿔야 하는 직업적 특성이 있다. 한 학

교에서 5년을 채우고 새로운 학교에 부임하게 되면, 새로운 학생들의 상담기록을 살피고 새로운 학교 구성원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에, 현직전문상담교사는 근무학교에 부임한 첫해를 제외한 기간에 교육실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습학교 구성원들의 전문상담교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증진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학교 구성원들이 비밀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담 분야의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담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회상하며, 전문상담교사 업무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예비전문상담교사에게 담임학급을 배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일부는 담임학급을 맡는 것이 학생들을 이해하고 라포 형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다른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담임학급을 맡게 될 경우 담임학급에서 만난 학생들과의 다중관계로 인해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없음을 우려하였다. 이 부분은 전문상담교사의 업무에 대한 실습학교의 이해를 토대로 추후 현장에서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상담으로 교육실습을 나가면 적어도 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지도교사로 배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수학 선생님의 고충을 정확히 알 수 없듯이, 상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는 역할과 업무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선생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상담교사로 근무하게 되면 진로 진학 교사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건데..”
<심층면담 참여자 C>

교원양성기관의 역할.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교육실습생들이 전문상담 교육실습에서 실제 상담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실습생들이 상담을 진행한 후 전문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에, 이미 관련 자격을 갖춘 대학(원)의 상담전공 교수들에게 예비전문상담교사들이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교원양성기관에서 학교상담 실무에 관한 실제적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들이 이론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예비전문상담교사들이 교육실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보거나, 학교상담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교과목이 개설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예비전문상담교사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교육실습’ 수업 자체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실습에 나가기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교육실습’ 수업은 예비전문상담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목의 교육실습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즉, 수업의 초점이 교과 교육실습에 있고, 주요 평가 항목 역시 수업 시연을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담 관련 실습을 주로 경험해야 하는 전문상담 교육실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실습’ 과목 내용에 상담 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 교원양성기관이 실습학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육실습 이후, 교육

실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미흡한 운영이 이루어진 실습학교에는 향후 실습생이 배정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다.

“전문상담교사가 사실 (상담)슈퍼바이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개인상담 사례를 맡으면, 대학원 지도 교수님과 연계해서 그 사례를 짧게라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슈퍼비전을 받는 경험 자체가 (예비전문상담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 실질적으로 학교 위(We)클래스의 역할이나 학부모 주변 동료 선생님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실습 수업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어떤 과제의 한 쪽지 정도로 해서 학생들이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층면담 참여자 B>

교육(지원)청의 역할.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는 실습 나갈 학교를 알아볼 때부터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양성기관과 실습학교 사이에서 교육(지원)청이 가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이 교육실습 지도역량을 갖춘 교사들의 정보를 확보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교사에게 교육실습생들을 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보다 양질의 교육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하였다.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전문상담 교육실습 지도교사들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상담 교육실습 지도교사들은 각자의 지도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성찰할 뿐 아니라 향후 진행될 교육실습 지도를 위한 전문상담교사들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더 나아가 전문상담 교육실습 지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도교사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플랫폼 내에서 공유한 다양한 실습지도 자료들을 각자의 학교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 모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하였다.

“저희 지역에 실습지도를 되게 꼼꼼하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신데, 그분이 제게 공유해주신 자료가 있어요 (...) 그걸 보고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이렇게 지도해주시고 했던 것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공유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거는 좀 더 연구해서 매뉴얼화 돼서 좀 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면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심층면담 참여자 C>

논 의

본 연구는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의 경험 및 의견을 토대로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에서는 교육실습 내용의 구성요소로 도출된 상담 실습활동, 상담 교육활동, 위(Wee)클

래스 운영 및 행정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실습 내용의 조직방법과 교원양성기관 및 실습학교의 협력방안을 통합하여 논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확대된 역할에 대한 기대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첫째, 예비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상담 실습활동’이 교육실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현직전문상담교사들은 자신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직무가 학생을 상담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교육실습에서 상담 실습활동을 우선하여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일반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육전문가 모두 전문상담 교육실습에서 상담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강승희(20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상담 실습활동을 교육실습에 반영하여 운영할 때, 학교급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참여자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학부모 상담이 더 주요하게 이루어지므로, 전문상담교사들은 교육실습에서 학부모 상담 실습을 경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하였다.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경우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써야 하기에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기 전부터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는 고충이 보고되고 있다(최준섭, 2020). 따라서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시의적절한 개입이 일반교사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데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위기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실습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는 하규영 외 (2022)의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초임 전문상담교사들은 학교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위기사례를 처리하는 과정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교육실습을 통해 위기상담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교의 고위험군 관리 및 긍정적인 학교상담 경험이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양모현 외, 2023)을 고려할 때, 위기관리 및 전문적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예비전문상담교사의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만 배포되는 위기사안 대처방안이나 위(Wee)클래스 우수상담사례집과 같은 자료를 교육실습에서 적절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상담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급된 윤리적 측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윤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미국학교상담자협회(America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ASCA)의 윤리강령은 학교상담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법적·윤리적 이슈에 관한 기사를 학교상담자 매거진 각 호에 게재하여 학교상담자들이 지속해서 관심을 두도록 독려하고 있다(ASCA, 2024). 또한 미국학교상담자협회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윤리적 요구 또한 변화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1984년 제정된 윤리강령을 5차례(1992년, 1998년, 2004년, 2010년, 2016년)에 걸쳐 개정하였다. 반면, 한국학교상담자협회는 2004년 제정된 윤리강

령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 없이 유지되어왔다(유형근, 2022). 더불어 미국의 학교상담 윤리강령에는 상담실습과 인턴십 현장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유형근, 2022). 지도교사와 실습생이 전문상담 교육실습 과정에서 겪는 윤리적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학교상담 장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안내서나 사례집 등이 마련된다면, 예비전문상담교사뿐만 아니라 현직 전문상담교사들이 윤리적 갈등 상황을 다루는 역량까지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상담교사는 미성년자라는 내담자의 특성과, 교사와 학부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 학교상담의 환경적 특성 때문에 비밀보장에 대한 갈등을 더욱 빈번하게 마주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하게 된다(정미라, 유금란, 2018). 따라서 교육실습 지도교사가 예비전문상담교사에게 비밀보장의 중요성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민감하고 무겁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상담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준위원회(CACREP, 2024; Section 4-B, C)는 상담실습과 인턴십 과정 동안 실습생들이 전문 상담 책임 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녹음, 녹화된 내용 또는 실시간 감독(live supervision)을 통해 실습생이 감독받는다는 점을 CACREP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 또한 내담자와 보호자에게 예비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책임범위, 지도교사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

을 제공하고 상담 동의를 구한 후 이를 문서화 하는 등 상담실습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상담 관련 공식 기준이나 규정에 입각한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예비전문상담교사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상담을 받는 학생에 대한 보호도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실습에서 상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우선,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교원자격검정령(2013) 제 20조 5항에 따라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학교와 협력적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현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중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대부분 이론 중심의 과목들로 이루어져, 예비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상담 현장 및 교육실습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규영 외, 2022). 관련하여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상담기술’이나 ‘상담사례실습’ 등의 교과목과 더불어 위(Wee)클래스의 연간 운영, 학교급별 차이,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한계 등 학교상담 전반에 대한 실제적 측면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 개설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일례로 일반교과의 경우 수업 시연만을 배우는 과목이 따로 존재하듯, 참여자들은 상담을 진행하고 사례지도를 받는 데만 초점을 두는 상담실제 관련 과목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김희정 외(2014)의 연구에서도 실제 상담사례 진행과 슈퍼비전, 상담기술 훈련, 사례개념화 실습이 전문상담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추가될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실습 중 진행한 상담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라왔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학교상담교사 양성과정 중 슈퍼비전 받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담실습 과정에서 매주 평균 1시간의 개인 슈퍼비전과 평균 1.5시간의 그룹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며, 이 기준은 인턴십을 진행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CACREP, 2024; Section 4-S, T). 영국의 경우 슈퍼바이저의 지도하에 100시간 이상의 상담실습을 진행해야 하며, 싱가포르의 경우 6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한다(김민정, 2022). 전문상담 교육실습생이 소속된 교원양성기관의 지도교수와 실습학교의 지도교사가 공동으로 교육실습에서 배정받은 사례에 대해 슈퍼비전을 진행할 수 있다면, 예비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함양에 가장 이상적인 훈련 방식이 될 것이다. 상담현장실습 과정 중 그룹 슈퍼비전이 실시되는 수업에 참여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의 경험을 다룬 선행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소속된 대학원에서 슈퍼비전을 받는 경험을 통해 낯설고 어려운 상담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고, 상담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김선혜, 한영주, 2019).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도교수와 지도교사 모두 예비전문상담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평가자이자 상담 슈퍼바이저라는 두 가지 역할을 갖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중관계 이슈를 고려해야 하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상담교사들이 슈퍼비전에 참여했을 때 자신의 상담 능력 및 전문성이 향상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정진철, 양난미, 2021), 상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슈퍼비전을 받는 것은 예비전문상담교사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판단

된다. 따라서 다중관계의 윤리적 딜레마를 최소화하면서 질 높은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 실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습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타교과 교사가 전문상담 교육실습을 지도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상담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지도교사는 상담 및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와 자격증/면허를 취득하고, 학교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며, 대면/원격 상담 슈퍼비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슈퍼비전에 사용되는 기술, 요구사항 및 평가절차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CACREP, 2024; Section 4-N, O, P). 상담이라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습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박혜영, 정현희, 2023). 교육실습 지도교사는 교육실습생의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실습을 만들어가는 데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승현, 한대동, 2016). 특히, 전문상담 교육실습생에게 전문상담 직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실습을 진행한다거나, 학생과의 상담활동을 참관하려는 등 연구참여자들이 보고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 역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와 상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둘째, 예비전문상담교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상담 교육활동’을 교육실습에 포함하되,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업무의 불명확성은 전문상담교사들의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어 능률을 저하시키고, 직무스트레스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이현아, 이기학, 2009).

본 연구 참여자 중 교육실습에서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일부 예비전문상담교사들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늘어나 친밀한 관계형성 역량을 기를 수 있었으나, 수업을 받는 학생이자 상담을 받는 내담자라는 다중관계가 형성될 때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다고 보고하였다. 관련하여 다수의 전문상담교사들은 전문상담교사의 수업 진행에 대한 업무분장이 현재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에 대해 신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전문상담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위(Wee)클래스를 홍보하고, 일반교과에서 배우기 어려운 의사소통 방법, 갈등해결 방법, 정서 조절 방법 등을 가르쳐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에 지향(指向)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비교과교사로 임용된 전문상담교사들에게 수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며 무엇보다 상담자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업을 지양(止揚)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였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반승관 외, 2021; 하규영 외, 2022; 한국교육개발원, 2020).

셋째, ‘위(Wee)클래스 운영 및 행정활동’ 또한 교육실습에 포함시켜, 예비전문상담교사의 실무역량을 키우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주요 구성요소임이 드러났다. 전문상담교사는 위(Wee)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혼자 구상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정하윤, 조항, 2022), 교육실습에서 위(Wee)클래스 운영 전반에 대해 미리 배우는 것은 예비전문상담교사의 실제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초보상담자의 경우 생소한 행정업무를 상담업무와 병행하는 것 또한

직업 적응에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홍지영, 김진희, 2018)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상담기록은 상담에 관한 기억의 저장소이자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내담자에게 제공된 상담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료이므로(유정이 외, 2014), 상담기록 및 보관과 관련된 실습활동이 구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상담기록 역량을 기르지 못한 채 전문상담교사가 되었을 경우, 상담활동에 대한 기록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을 수 있어 상담기록의 신뢰성을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홍지영 외, 2018). 현직전문상담교사들 또한 임용 후 첫 상담기록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학교현장에서 상담기록 및 관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Wee)클래스 홍보 기획 및 진행, 전문상담교사의 1년 업무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상담실 연간 운영 계획서 작성 등의 활동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교육실습에서 주어진다면, 학교상담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상담 실습, 상담 교육, 위(Wee)클래스 운영 및 행정활동을 강화하는 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특별히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실습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겪었던 어려움을 회상하며, 교육(지원)청이 교육실습생들과 실습학교를 연계해 주는 협력시스템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였다. 미국 상담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준위원회(CACREP, 2024; Section 4-A, G)에서는 상담교육프로그램에서 실습생들이 실습기관을 찾을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실습생과 슈퍼바이저에게 실습

요구 사항, 기대, 정책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현장실습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문상담 교육실습 지도안을 지도교사들 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내에 구축된다면, 교육실습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에 축적되는 자료들을 활용해 매년 전문상담 우수교육실습사례집을 발간하여 각자의 학교 상황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우수교육실습사례로 선정된 지도교사를 초빙하여 현직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진행한다면 전문상담 교육실습 지도교사들의 지도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협력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실습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간담회를 통해 상호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관계기관 간 더욱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내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서 구성이나 인력 충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교육실습 제도 안에서의 대안들이 대부분 언급되었으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한 달간의 교육실습 경험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주된 목적이 학교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실습인지, 상담실무를 경험하기 위한 실습인지에 대한 모호함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하규영 외, 2022). 또한 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용시험을 통과한

후 2년간의 수습기간을 두어 필요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본 연구의 일부 참여자들 또한 4주간의 교육실습만으로 상담실무 역량까지 함양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교육부가 주관하여 학교상담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24). 싱가포르에서는 사전에 상담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상담교사 양성과정의 경로가 나뉘는데, 특히 사전에 상담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가 우리의 전문상담교사와 유사하다. 살펴보면, 싱가포르상담협회(SAC)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의무 사전 교육(compulsory school stint) 및 기초 훈련 프로그램(foundational training programme) 단계를 마친 뒤, 이후 2년 동안 추수관리를 받게 된다. 첫 단계에서 진행되는 의무 사전 교육이란 상담 훈련을 받지 않은 지원자들이 예비 학교상담교사로서 학교에 근무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비 학교상담교사들은 멘토의 지도하에 학교상담과 관련된 흥미와 적합성을 확인받는다. 이후 8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기초 훈련 프로그램에서 상담 훈련을 받게 되며, 이때에는 학생들의 사회적·정서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실제적인 상담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담 이론과 접근, 세부 상담 기술, 학교 집단상담과 집단작업, 아동·청소년의 발달문제, 다문화적 협력체계, 학교상담에서의 윤리문제, 학교상담 프로그램: 설계·실행·평가, 학교상담의 특수주제’라는 8개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 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비로소 학교상담교사로 근무하게 되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에도 초기 2년 동안은 추수관리 과정을 거친다.

한 달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교육실습과 달리,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는 실제적인 상담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충분한 실습시간과 훈련, 관리감독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내에서 전문상담을 실시하는 유일한 교사로, 초보자로서 실수하거나 천천히 배워가기보다 전문가로서 유능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인규, 2009). 이에, 학교현장실습과 상담실무실습을 구분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역량을 키워나갈 실질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외 성공적인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도 임용 후 2급 전문상담교사로서의 기간을 인턴십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임용 후 1년은 위(Wee)센터에서 근무하며 상담기술을 습득하고, 이후 1년은 위(Wee)클래스에서 선배 전문상담교사와 공동으로 학교상담실을 운영한 뒤, 최종 평가를 거쳐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주는 방안을 구체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 변화는 현재 한 학교 내 최대 1,000명이 넘는 전교생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전문상담교사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심층면담의 두 단계를 거친 연구로서,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두 주체(예비전문상담교사, 현직전문상담교사)의 의견을 모두 담아내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용 및 운영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

직교사의 교육실습 경험과 전문상담교사의 직무 활동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교육실습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전문상담 교육실습과 관련된 논의를 확장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틀과 환경적 조건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교육실습 내용들을 제시하며, 전문성 함양에 특화된 방식으로 교육실습 내용을 조직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결과를 토대로 현직전문상담교사는 효과적인 전문상담 교육실습 지도 계획을 구상하거나 구상한 지도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예비전문상담교사 또한 교육실습에 나가기 전 사전 준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체계적인 전문상담 교육실습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문상담 교육실습을 운영하는 실습학교, 교원양성기관, 교육(지원)청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원양성기관과 실습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확대된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각 기관들이 교육실습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현행 교육실습의 한계와 개선 요구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점은 학교상담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급별 차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교육실습 내용 및 개

선방안을 탐색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와 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업무는 차이가 있으며, 상담 대상의 특성 또한 차이가 있다. 이에, 향후 초등 상담과 중등 상담의 차이를 고려한 세부적인 교육실습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참여자의 성차나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경우 90% 이상, 심층면담 참여자의 경우 100%가 여성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남성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층면담의 경우 참여자들의 근무지가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한정되어 있다. 전문상담 교육실습 내용 및 운영 실정이 지역별로 상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다양한 지역의 전문상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상담 교육실습은 ‘실습 준비 - 실습 초·중기 - 실습 종결 및 평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천성문, 2014). 본 연구에서 교육실습의 종결 및 평가 단계에 대한 참여자들의 언급은 없었기에, 연구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의 종결 및 평가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전문상담 교육실습과 다른 비교과 교육실습 또는 교과 교육실습 간 비교 연구도 필요하다. 심층면담에서 교과 교육실습과 전문상담 교육실습을 모두 경험해 본 응답자들은 이 두 과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상담 교육실습에 참여하였을 때, 교과 교사들과의 비교로 박탈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참여자도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영양, 보건, 사서와 같은 타 비교과나 교과 교육실습과의 비교 연구를 통

해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한계와 보완점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처럼 전문상담 교육실습 매뉴얼이 마련되는 일도 시급하지만, 이후에는 매뉴얼이 현장에 적합하게 그리고 비교적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가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상담 교육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화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몇 가지 사항을 되짚어보면, 학교급별 차이를 구분하여 전문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과 교육실습 지도 과정에서 상담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기에 현재로서는 부족함을 느끼는 상담교사들의 고충이나 다중관계 이슈 등이 매뉴얼 제작 및 검토 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상담 교육실습생의 담임학급 배정 여부, 학급 단위 교육활동 포함 여부와 같이 윤리적 갈등이나 당사자 간 견해차가 있는 사항을 실습 매뉴얼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專門)’이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만을 연구하거나 말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18). 전문상담교사는 교사 중 유일하게 ‘전문’이라는 명사가 붙는 교사로, 이 유일성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혼돈기 속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오롯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책임을 가진다. 학생들의 인지적 성장뿐 아니라 정서적·심리적 성장을 조력하는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더욱이 이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도 전

문상담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실습 과정의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승희 (2020). 예비전문상담교사의 교육실습 인식 비교: 예비전문상담교사와 교사,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교원자격검정령, 제34157호 제20조 (201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291#0000>
- 국립국어원 (2018). 표준국어대사전. Retrieved 2023. 9. 4. from <https://stdict.korean.go.kr>
- 김민정 (2022). 학교상담제도의 국제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혜, 한영주 (2019). 상담 현장실습생들의 집단 수퍼비전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20(3), 243-264.
- 김신애 (2022). 예비전문상담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 현상학적 접근. *상담심리교육복지*, 9(5), 55-75.
- 김인규 (2009). 전문상담교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1), 517-534.
- 김혜숙, 이기학 (2012). 전문상담교사 경력 단계별 연수 요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505-528.
- 김희정, 유형근, 정여주, 선혜연, 김영재 (2014).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연구. *교육부*.
- 문은희 (2019). 예비전문상담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

- 학위논문.
- 박혜영, 정현희 (2023). 예비전문상담교사의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내용분석. *교원교육*, 39(3), 127-153.
- 반승관, 임유화, 신주연 (2021). 전문상담교사의 교육실습 지도경험에 관한 합의적 질적연구.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69(3), 389-418.
- 양모현, 박효은, 이주영, 이동훈 (2023). 청소년 자살의 보호요인에 관한 델파이 연구: 생물심리사회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3), 1055-1078.
- 유은선, 조 항 (2020). 예비전문상담교사의 교육실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원교육학회*, 36(1), 43-68.
- 유정이, 두경희, 이아라 (2014). 상담기록의 필수 목록 개발을 위한 상담전문가의 인식에 대한 델파이 연구. *상담학연구*, 15(5), 1695-1715.
- 유형근 (2006).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6(2), 215-233.
- 유형근 (2007).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한미 교육실습체제 비교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17(2), 59-80.
- 유형근 (2022). 미국과 한국의 학교상담윤리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581-597.
- 이승현, 한대동 (2016). 초등학교 교육실습 지도교사의 실습 지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1), 191-216.
- 이유빈, 조유정, 김세림, 조항 (2023). 상담전공 학부생의 비교과 상담실습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교육치료연구*, 15(2), 241-264.
- 이정빈 (2018). *질적 연구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이태희 (2023.03.19.). 학교폭력 피해자들, "10년이 지나도 괴로워요"... 전문상담 확대 필요. *대전일보*.
<http://www.daej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450>
- 이현아, 이기학 (2009).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83-102.
- 정미라, 유금란 (2018). 비밀보장 갈등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의 대처행동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541-574.
- 정진철, 양난미 (2021). 전문상담교사의 집단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방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4), 1563-1596.
- 정하운, 조 항 (2022). 예비전문상담교사 교육실습 개선을 위한 델파이 연구. *교원교육학회*, 38(6), 413-434.
- 천성문 (2014). *학교상담 교육실습 매뉴얼*. 서울: 학지사.
- 최준섭 (2020). 초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부모 상담주간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초등상담연구*, 19(4), 391-408.
- 하규영, 이지향, 이지원, 전은경, 박지수, 허난설 (2022). 예비전문상담교사 학교현장실습 운영 개선을 위한 질적연구. *상담학연구*, 23(6), 49-75.
- 학교보건법, 제18640호 제11조 (201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B%B3%B4%EA%B1%B4%EB%B2%95>
- 학교폭력예방법, 제19942호 제16조 (2023).

- <https://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학교폭력예방법, 제19942호 제17조 (2023).
<https://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한국교육개발원 (2020). 전문상담 양성 과정 개선 방안 연구.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4000>
- 한병규 (2023.08.14.). 교권 사라진 교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교육신문.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9655>
- 현은희 (2019). 교육실습경험이 예비전문상담 교사의 교직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지영, 김진희 (2018). 초보상담자의 직업적응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689-714.
- 홍지영, 유정이, 김진희 (2018). 청소년상담자의 상담기록 생성, 관리, 폐기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61-92.
-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2024). *Ethical Responsibilities*.
<https://www.schoolcounselor.org/About-School-Counseling/Ethical-Legal-Responsibilities>.
-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2024). *2024 CACREP Standards*.
<https://www.cacrep.org/wp-content/uploads/2023/06/2024-Standards-Combined-Version-6.27.23.pdf>
- School Counsellor(Trained/Untrained). (2024.01.16.). *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https://www.moe.gov.sg/careers/non-teaching-careers/allied-educators/school-counsellor>

원 고 접 수 일 : 2023. 10. 23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1. 17

게 재 결 정 일 : 2024. 02. 02

Enhancing the Educational Practicum f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Trainees

A Rom Hyun¹⁾ Ha Yan An²⁾

¹⁾Song Hyeon Elementary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²⁾Seoul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Professor

This study explores approaches to improve the educational practicum for school counselor trainees by reflecting on the practicum experiences of pre-service and in-servic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se counselors to capture their insights, follow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in-servic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Data analysis yielded 3 main domains, 9 categories, and 23 key concepts. The ‘Practicum Content Components’ domain included categories such as counseling practice, counseling education, and Wee-class operation. The ‘Practicum Content Organizing Method’ domain included ethica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The ‘Cooperation Plan with Related Agencies for Practicum Operation’ domain included categories such as the roles of training schools, teacher training institutes, and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offers suggestions for refining the educational practicum, aiming to bolster the practical competencies of pre-service school counselors.

Key words : *Educative practicum, Pre-servic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